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취약가구 집수리 봉사

김지인 기자 / 입력 : 2025년 09월 19일(금) 12:03



© 성주신문

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농촌지역 취약가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.

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초전면의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맞춤형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.

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 내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업해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수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농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임직원들은 대상가구에 대해 약 8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시공업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지붕 기와강판 교체와 물받이 시공을 지원했다.

이어 내부 가구 정리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병행해 대상가구의 불편을 최소화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이돈문 지사장은 "의식주 중에서도 주거환경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취약 계층이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 영역"이라며 "앞으로도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공사로 나아가겠다"고 다짐했다.

url : http://www.seongju.co.kr/default/index_view_page.php?part_idx=312&idx=58280

Copyrights ©성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